

# 직업지위를 통해 살펴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sup>1)</sup>

백원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관련된 성과인 임금, 종사상 지위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보임.
  - 기존 산업사회와는 달리 기술의 발전, 소비 패턴 변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노동수요 증대 등 여러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가 되었음.
  -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직업적 위신(occupational prestige),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 형태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이러한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음(Katz-Gerro & Yaish, 2003; Van de Werfhorst, 2004; Shwed & Shavit, 2006).
  
-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직업적 지위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생활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대

1) 이 원고는 2020 KRIVET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백원영 외(2020)의 「직업지위점수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중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수반하고 있음(양춘, 2000).

-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개인이 성취한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며(방하남·김기현, 2001), 직업이 지위획득모형에서 사용될 경우 주로 사회경제지수(socioeconomic index)나 직업위세척도(occupational prestige scale)로 활용되고 있음(Treiman & Ganzeboom, 1990; Featherman & Hauser, 1994; 방하남·김기현, 2001).

#### □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직업지위 점수에 따라 구분한 범주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 직업지위에 대한 시초는 국내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같이 세부적으로 직업을 분류한 자료를 개별 연구자의 선호나 연구 목적에 따라 관련성 있는 척도로 재코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 기존 연구의 상당 부분에서는 직업을 분류하는 것이 사회 이동성, 세대 간 지위 세습 등 계층화 연구의 바탕을 이룸(Grusky & Van Rompaey, 1992).
- 개인 특성, 가구 배경, 대학 교육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직업지위를 활용함으로써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임금 등과 함께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음.

##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I 1차(2004)~12차(2015) 연도 및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2020년)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진입 후 첫 일자리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2,905명을 대상으로 직업지위 범주별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살펴봄.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은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2004)~12차(2015) 연도까지 매년 실시해 온 중·장기적 패널 조사임. 2020년도에 동일한 패널 3,150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조사(12차 연도) 이후의 학력 및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음.
- 직업지위의 점수와 범주화를 위해 KEEP I 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직업분류(Korea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KECO)를 한국표준교육분류와 연계한 뒤, 이를 다시 국제표준직업분류로 분류하여 Ganzeboom & Treiman(1996)의 코드를 매칭함.
  - Ganzeboom & Treiman(1996)은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 및 계층화 범주(Erickson and Goldthorpe's class categories, EGP)를 19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의 3~4자리 단위에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용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직업지위 점수로 통용되고 있음.

표 1. 직업지위 분류 기준

		ISEI 평균	EGP
I	상위 전문직, 관리직, 대기업 경영자	68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II	하위 전문직, 관리직, 상위 기술직, 소기업 경영자, 사무 감독직	58	
III	사무직 노동자	45	사무직 노동자
IVa	피고용인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48	자영업자
IVb	피고용인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42	
V	하위 기술직, 육체노동자 감독직	40	숙련 육체노동자
VI	숙련 육체노동자	36	
VIIa	반숙련, 미숙련 육체노동자(비농업 부문)	31	농업 노동자
VIIb	농업 등 1차산업 노동자	18	
IVc	농민, 소지주, 1차산업 경영자	26	

출처: Ganzeboom & Treiman(1996)를 재구성함.

○ 분석은 노동시장 진입 후 첫 일자리를 가진 표본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업지위의 범주는 <표 1>에 제시된 EGP 6개의 범주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육체노동자, 비숙련 육체노동자, 농업 노동자의 5개의 범주를 활용함.

□ 분석 대상의 가구 배경, 대학 전공 및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분석 대상 중 남성은 57.5%, 여성은 42.5%이며, 첫 일자리에 진입한 시점의 만 나이는 25세 미만이 47.4%, 25~30세 미만이 44.2%, 30세 이상이 8.4%임.
- 고등학교 졸업자는 0.7%에 불과하고, 전문대학 졸업생 39.3%, 일반대학 졸업생이 60.0%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100~300만 원 미만이 49.8%, 300~500만 원 미만이 31.8%, 500~700만 원 미만이 8.1%, 100만 원 미만 6.4%, 700만 원 이상 3.8% 순으로 나타남.
- 부모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9.5%, 중학교 졸업 이하가 26.2%, 일반대학 졸업이 15.4%로 나타났고, 부모 직업지위의 경우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가 52.4%, 비숙련 노동자 21.7%, 숙련 노동자 11.8%의 순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중 대학 졸업자의 전공은 공학계열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경제 14.7%, 예체능계열 12.1%, 자연계열 10.1%로 나타남.
- 첫 일자리를 임금근로자 상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77.6%, 임시·일용직은 22.4%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34.2%, 100~150만 원 미만 28.5%, 150~200만 원 미만 25.9%, 100만 원 미만 11.5% 순임.
- 분석 대상의 직업지위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에 속하는 비중이 54.2%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 노동자 22.7%, 비숙련 노동자 12.5%, 숙련 노동자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노동자는 0.5%에 불과함.

표 2.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71	57.5
	여성	1,234	42.5
연령	25세 미만	1,378	47.4
	25~30세 미만	1,283	44.2
	30세 이상	244	8.4
학력	고등학교 졸업	19	0.7
	전문대학 졸업	1,134	39.3
	일반대학 졸업	1,731	60.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51	6.4
	100~300만 원 미만	1,168	49.8
	300~500만 원 미만	746	31.8
	500~700만 원 미만	190	8.1
	700만 원 이상	90	3.8
부(모) 학력	중졸 이하	708	26.2
	고졸	1,336	49.5
	전문대졸	124	4.6
	일반대졸	416	15.4
	대학원 석사 이상	116	4.3
부(모)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1,070	52.4
	사무직 노동자	99	4.9
	숙련 노동자	240	11.8
	비숙련 노동자	442	21.7
	농업 노동자	191	9.4
대학 전공	인문계열	278	9.7
	경영·경제	423	14.7
	법	37	1.3
	사회과학	239	8.3
	교육계열	167	5.8
	공학계열	853	29.7
	자연계열	291	10.1
	의약계열	241	8.4
예체능계열	347	12.1	

〈표 계속〉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47	77.6
	임시·일용근로자	418	22.4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239	11.5
	100~150만 원 미만	594	28.5
	150~200만 원 미만	541	25.9
	200만 원 이상	713	34.2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1575	54.2
	사무직 노동자	658	22.7
	숙련 노동자	295	10.2
	비숙련 노동자	363	12.5
	농업 노동자	14	0.5

주: 1) 범주별 결측값으로 인해 범주별 합계가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부(모) 학력 및 직업지위 범주는 부를 기준으로 하고, 결측치의 경우 모의 학력 및 직업지위 범주로 대체함.

### Ⅲ.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

#### □ 직업지위 범주별 개인 특성

○ 직업지위 점수에 따라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사무직 노동자(여성 54.6%)를 제외하고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의 경우 남성 56.3%, 여성 43.8%이며,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업 노동자의 경우 남성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직업지위 범주별 개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업 노동자
성별	남성	886 (56.3)	299 (45.4)	212 (71.9)	263 (72.5)	11 (78.6)

〈표 계속〉

## 조사 · 통계 브리프

성별	여성	689 (43.8)	359 (54.6)	83 (28.1)	100 (27.6)	3 (21.4)
	전체	1,575 (100.0)	658 (100.0)	295 (100.0)	363 (100.0)	14 (100.0)
학력	고졸 이하	7 (0.5)	5 (0.8)	4 (1.4)	3 (0.8)	-
	전문대졸	486 (31.1)	246 (37.6)	172 (59.1)	224 (62.2)	6 (42.9)
	일반대졸	1,072 (68.5)	403 (61.6)	115 (39.5)	133 (36.9)	8 (57.1)
	전체	1,558 (100.0)	649 (100.0)	287 (100.0)	357 (100.0)	14 (100.0)

### □ 직업지위 범주별 대학 전공

○ 직업지위 범주에 따른 대학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의 경우 공학계열 (28.9%)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경영·경제 28.0%, 공학계열 22.7%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숙련 노동자 및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공학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6%,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 직업지위 범주별 대학 전공

(단위: 명, %)

구분	대학 전공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업 노동자
대학 전공	인문계열	151 (9.7)	86 (13.2)	11 (3.8)	28 (7.8)	2 (14.3)
	경영·경제	172 (11.0)	182 (28.0)	8 (2.8)	60 (16.7)	1 (7.1)
	법	24 (1.5)	8 (1.2)	1 (0.4)	4 (1.1)	-
	사회과학	117 (7.5)	68 (10.5)	29 (10.1)	25 (7.0)	-
	교육계열	122 (7.8)	35 (5.4)	4 (1.4)	6 (1.7)	-

〈표 계속〉

대학 전공	공학계열	452 (28.9)	148 (22.7)	108 (37.6)	142 (39.6)	3 (21.4)
	자연계열	161 (10.3)	51 (7.8)	40 (13.9)	33 (9.2)	6 (42.9)
	의약계열	173 (11.1)	17 (2.6)	32 (11.2)	19 (5.3)	-
	예체능계열	193 (12.3)	56 (8.6)	54 (18.8)	42 (11.7)	2 (14.3)
	전체	1,565 (100.0)	651 (100.0)	287 (100.0)	359 (100.0)	14 (100.0)

## □ 직업지위 범주별 가구 배경

○ 기존 연구에서는 가구 배경과 자녀의 경제적 성취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Duncan & Brooks-Gunn, 1997; Bowles et al., 2009; Ziol-Guest et al., 2009; Ermisch et al., 2012, 본고의 기초통계상에는 직업지위 범주별 가구소득, 부모 학력, 부모 직업지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표 5. 직업지위 범주별 가구 배경 특성

(단위: 명, %)

구분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업 노동자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9 (6.3)	30 (5.5)	17 (7.0)	24 (8.3)	1 (9.1)
	100~300만 원 미만	578 (46.0)	278 (51.0)	145 (59.7)	162 (55.9)	5 (45.5)
	300~500만 원 미만	427 (34.0)	178 (32.7)	65 (26.8)	73 (25.2)	3 (27.3)
	500~700만 원 미만	108 (8.6)	45 (8.3)	12 (4.9)	25 (8.6)	-
	700만 원 이상	64 (5.1)	14 (2.6)	4 (1.7)	6 (2.1)	2 (18.2)
	전체	1,256 (100.0)	545 (100.0)	243 (100.0)	290 (100.0)	11 (100.0)

〈표 계속〉

부모 학력	중졸 이하	336 (23.1)	146 (24.0)	93 (32.9)	129 (38.1)	4 (28.6)
	고졸	686 (47.1)	333 (54.8)	148 (52.3)	161 (47.5)	8 (57.1)
	전문대졸	82 (5.6)	25 (4.1)	7 (2.5)	10 (3.0)	-
	일반대졸	259 (17.8)	93 (15.3)	28 (9.9)	34 (10.0)	2 (14.3)
	대학원 석사 이상	93 (6.4)	11 (1.8)	7 (2.5)	5 (1.5)	-
	전체	1,456 (100.0)	608 (100.0)	283 (100.0)	339 (100.0)	14 (100.0)
부모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634 (58.3)	232 (49.1)	88 (41.7)	112 (43.6)	4 (30.8)
	사무직 노동자	54 (5.0)	28 (5.9)	7 (3.3)	10 (3.9)	-
	숙련 노동자	124 (11.4)	51 (10.8)	28 (13.3)	36 (14.0)	1 (7.7)
	비숙련 노동자	202 (18.6)	122 (25.8)	59 (28.0)	58 (22.6)	1 (7.7)
	농업 노동자	74 (6.8)	40 (8.5)	29 (13.7)	41 (16.0)	7 (53.9)
	전체	1,088 (100.0)	473 (100.0)	211 (100.0)	257 (100.0)	13 (100.0)

주: 부모 학력 및 직업지위는 부를 기준으로 하고, 결측치의 경우 모의 학력 및 직업지위로 대체함.

## □ 직업지위 범주별 노동시장 이행 현황<sup>2)</sup>

○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의 경우 79.4%,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73.9%로 나타났으며, 숙련 노동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84.8%,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15.2%로 나타남.

-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69.7%,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30.3%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의 경우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는 200만 원에 속하는 비중이 39.7%, 사무직

2) 농업 노동자에 속하는 표본이 많지 않아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음.

노동자 및 숙련 노동자는 100~150만 원 미만이 각각 32.8%, 37.3%, 비숙련 노동자는 150~200만 원 미만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189만 원, 숙련 노동자 170만 9,000원, 사무직 노동자 157만 8,000원, 비숙련 노동자 154만 1,000원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중 졸업 후 첫 직장 진입까지의 이행 기간을 살펴보면, 비숙련 노동자 18.1개월,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16.6개월, 사무직 노동자 16.3개월, 숙련 노동자 14.1개월 순으로 나타남.

○ 직업지위 범주별 직업지위 점수의 평균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59.5점, 사무직 노동자 43.7점, 숙련 노동자 35.6점, 비숙련 노동자 30.5점, 농업 노동자 43.0점임.

표 6. 직업지위 범주별 노동시장 이행 현황

(단위: 명, %)

구분		직업지위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사무직 노동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농업 노동자	
첫 일자리 이행 성과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81 (79.4)	322 (73.9)	179 (84.8)	159 (69.7)	6 (100.0)
		입시· 일용근로자	203 (20.6)	114 (26.2)	32 (15.2)	69 (30.3)	-
		전체	984 (100.0)	436 (100.0)	211 (100.0)	228 (100.0)	6 (100.0)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91 (8.2)	83 (17.4)	22 (9.4)	42 (16.8)	1 (8.3)
		100~150만 원 미만	281 (25.2)	156 (32.8)	87 (37.3)	70 (28.0)	-
		150~200만 원 미만	301 (27.0)	110 (23.1)	51 (21.9)	77 (30.8)	2 (16.7)
		200만 원 이상	443 (39.7)	127 (26.7)	73 (31.3)	61 (24.4)	9 (75.0)
		전체	1,116 (100.0)	476 (100.0)	233 (100.0)	250 (100.0)	12 (100.0)
		평균(만 원)	189.0	157.8	170.9	154.1	292.5

<표 계속>

	이행 기간(개월)	16.6	16.3	14.1	18.1	24.6
	직업지위 점수(점)	59.5	43.7	35.6	30.5	43.0

#### IV.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자 표본을 나누어서 개인 특성, 가구 배경, 대학 전공 등이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 성별의 경우 일반대학 졸업생의 임금 및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직업지위 점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부모 직업의 경우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업지위 점수에는 영향을 미침.
-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인문학 전공자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있으며, 이어서 공학, 자연, 사회과학, 교육, 예체능, 경영경제 전공자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문대학 졸업생의 대학 전공이 직업지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약, 사회과학, 공학, 경영·경제를 제외하고는 인문학에 비해 다른 전공에서의 유의한 직업지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일반대학 졸업생의 경우 임금과 직업지위 간 대학 전공의 효과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인문학 전공자와 비교하였을 때, 의약계열 전공자의 임금이 높고, 예체능 계열의 임금은 낮게 나타나지만, 교육, 공학, 자연계열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보다 유의하게 직업지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임금 및 직업지위 결정요인 분석

		전문대학		일반대학	
		임금	직업지위 점수	임금	직업지위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0.006 (0.063)	-0.047 (0.043)	0.126** (0.049)	-0.104*** (0.029)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0.001 (0.069)	0.090* (0.048)	0.045 (0.077)	0.075 (0.047)
부(모)직업	사무직 노동자	0.169 (0.116)	0.143* (0.080)	0.099 (0.107)	0.035 (0.067)
	숙련 노동자	-0.056 (0.079)	0.064 (0.056)	-0.083 (0.088)	0.058 (0.055)
	비숙련 노동자	0.012 (0.070)	0.105** (0.050)	-0.018 (0.081)	0.055 (0.049)
	경영·경제	0.308** (0.127)	0.150* (0.081)	0.040 (0.068)	0.048 (0.041)
대학 전공	법	0.639 (0.430)	-0.041 (0.313)	-0.032 (0.159)	0.023 (0.087)
	사회과학	0.411*** (0.134)	0.174** (0.085)	0.052 (0.078)	0.046 (0.046)
	교육계열	0.398** (0.161)	-0.005 (0.104)	0.102 (0.087)	0.199*** (0.052)
	공학계열	0.476*** (0.123)	0.160** (0.078)	0.105 (0.066)	0.144*** (0.039)
	자연계열	0.437*** (0.134)	0.077 (0.087)	0.036 (0.075)	0.105** (0.044)
	의약계열	0.491*** (0.127)	0.237*** (0.082)	0.301*** (0.105)	0.082 (0.060)
	예체능계열	0.391*** (0.126)	0.080 (0.081)	-0.127* (0.077)	0.022 (0.045)
	첫 일자리 이행 기간	0.004*** (0.001)	0.001 (0.001)	0.004*** (0.001)	0.001 (0.001)
N		396	442	641	783

주: 1) 종속변수는 월평균 임금 및 직업지위 점수(ISEI)를 로그로 변환한 값임.

2) 만 나이, 가구소득, 졸업 연도, 대학 졸업 평점, 교육훈련 참여 여부, 대학 전공, 졸업 연도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부(모) 직업지위의 준거 집단은 농업 노동자이고, 대학 전공의 준거 집단은 인문계열임.

4)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5)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V. 요약 및 결론

-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1차(2004)~12차(2015) 연도 및 2020연도 추적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지위 점수에 따른 범주별 개인 특성, 가구 배경, 노동시장 이행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분석 대상의 직업지위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에 속하는 비중이 54.2%로 가장 높았고, 사무직 노동자 22.7%, 비숙련 노동자 12.5%, 숙련 노동자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노동자는 0.5%에 불과함.
  - 직업지위 범주별 직업지위 점수 평균은 전문관리직 및 고용주 59.5점, 사무직 노동자 43.7점, 숙련 노동자 35.6점, 비숙련 노동자 30.5점, 농업 노동자 43.0점임.
-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를 활용하여 실증한 결과,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부모의 직업은 전문대학 졸업생 자녀의 소득보다는 직업지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 직업지위의 세대 간 이전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 줌.
- 대학 전공의 추정 결과 임금과 직업지위 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전공 분야에 따라 높은 임금이 곧 좋은 직업 또는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
- 직업구조의 변화나 새로운 직업의 발생 등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필요함.
  - 향후 직업지위가 노동시장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척도를 개발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임금과 일자리의 질 등의 지표와 비교 분석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참고문헌

- 방하남·김기현(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 백원영·이재성(2020). 「직업지위점수를 활용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 2020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양춘(2000). 『한국사회: 계층구조와 동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 1차(2004)~12차(2015) 연도 자료
- 황성수·윤혜준·민숙원·백원영·박라인·윤종혁(2019).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owles, S., Gintis, H. & Groves, M. O.(Eds.)(2009). *Unequal chances: Family background and economic succ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ncan, G. J., & Brooks-Gunn, J.(Eds.)(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Russell Sage Foundation.
- Ermisch, J., Jäntti, M., Smeeding, T. & Wilson, J. A.(2012). "Advanta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ap. 1 in *From Parents to Childre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antage*, edited by John Ermisch, Markus Jantti, and Timothy M. Smeeding.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Featherman, D. L. & Hauser, R. M.(1994). "Prestige or socioeconomic scales in the study of occupational achievement" in *Social Stratification: Class, Race, and Gender in Soci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Grusky, David B. Colorado: Westview Press, Inc.
- Ganzeboom, H. B. & Treiman, D. J.(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 Grusky, D. B. & Van Rompaey, S. E.(1992). "The vertical scaling of occupations: some cautionary comments and refl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 Katz-Gerro, T. & Yaish, M.(2003). "Higher education: is more better? Gender differences in labour market returns to tertiary education in Israel." *Oxford Review of Education* 29(4).
- Shwed, U. & Shavit, Y.(2006). "Occupational and economic attainments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in Israe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4).
- Treiman, D. J. & Ganzeboom, H. B.(1990). "Cross-national comparative status attainment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9.

Van de Werfhorst, H. G.(2004). "Systems of educational specializ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Norway, Australia,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5(5).

Ziol-Guest, K. M., Duncan, G. J. & Kalil, A.(2009). "Early childhood poverty and adult body mass index."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3).

사람이 희망입니다.